

조선 판타스틱 이리저리

신현수 장편소설



독후
활동지

◆책 소개

주인공 오로라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친구 수지와 일제 강점기 드라마 세트장에 놀러 가게 된다. 그곳에서 경성역으로 가는 모형 전차를 탄다. 그때 종소리가 울리더니 전차가 흔들렸다. 로라는 경성역이니 내리라는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하지만 멍기 머리와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차림 그리고 거리를 지나는 인력거와 깍다점까지 모든 것이 낯설다. 알고 보니 로라는 일제 강점기 시대로 타임 슬립 한 것이었다. 게다가 조선에 영어가 상륙해 잉글리시 열풍이 불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영어 공부에 지친 로라. 하지만 이곳에서는 영어 천재 소녀가 됐다? 거기에 현대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미션을 해야 한다. 과연 로라는 숨겨진 미션을 완수하고, 21세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독서 목표

- ① 소설의 구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 ② 등장인물을 통하여 당대 시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이야기 속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신현수 장편소설
『조선 판타스틱 잉글리시』

#역사 #타임슬립 #나다움 #배움

차례

1. 표지의 숨겨진 이야기?
2. 제목으로 놀자
3. 만나서 반가워
4. 과묵한 과묵
5. 나도 타임 슬립!
6. 상상의 날개를 찾아라
7. 경성챗봇 알림
8. 정말 잉글리시클럽이?
9. 내가 그린 경복궁
10. 묻고 답해요
11. 소설 속 역사 파헤치기
12. 나도 독립운동가
13. 반짝이는 지원에게

1. 표지의 숨겨진 이야기?

Q1 책 표지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감상을 적어 보세요.



Q2 표지 속 인물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2. 제목으로 놀자

Q1 소설 『조선 판타스틱 잉글리시』 제목으로 이야기를 추측해 보아요.

Q2 보기 중 마음에 드는 단어를 선택해 끝말잇기를 해 보세요.

예) 오로라 → 라디오 → 오징어

보기

경성

배움

잉글리시

오로라

3. 만나서 반가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특징을 써 보세요.

그리고 소설 속 등장인물의 특징을 적어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살펴보세요.

예) 오로라: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나

오로라

수지

현지완

스미레

도훈

어머니

아버지

4. 과묵한 과목

사실 난 국어와 역사는 상위권이지만 영어만큼은 아무리 노력해도 늘 하위권이였다. 우리 엄마의 교육 철학은 '영어는 인생의 기본 스펙'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영어 학교는 물론 방학 때면 해외 영어 캠프에도 보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영어 독과외까지 해 봤다. 하지만 영어는 원수처럼 늘 내 뒤통수를 쳤고, 중간고사 마지막 날인 오늘의 영어 시험 역시 완전 폭망했다. 그래서 난 수지에게 선언해 버렸다. 앞으로 영어는 포기하겠다고, 영포자 되겠다고. 통역 앱, 번역 앱, AI까지 있는 시대에 영어 때문에 더는 머리 싸매고 싶지 않다고. 내 인생에서 잉글리시 스터디는 영원히 아웃이라고! _p.14

Q1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Q2 각각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Q3 그렇다면 싫어하는 과목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볼까요?

5. 나도 타임 슬립!

그때 뿌우우~ 하며 땅이 떠나갈 듯 우렁찬 기적 소리가 들려 왔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비로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같았다. 여기는 드라마 세트장이 아니었다. 진짜 일제 강점기에 온 것이었다. 타, 임, 슬, 립. 그렇다, 내가 타임 슬립을 한 것이다. 무려 백 년 전쯤의 세상으로, 배꽃학당 3학년 여학생으로……. _p.11

오예! 내가 타임 슬립을!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 주인공이 타임 슬립 하는 거 볼 때마다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식민지 조선의 경성에 온 것이다. 더구나 역사는 국어와 더불어 나의 최애 과목이고, 우리나라의 여러 시대 중에서도 난 일제 강점기에 가장 관심이 많았기에 더 흥분이 되었다. 그래, 이왕 타임 슬립 했으니,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가리라. 식민지 조선의 경성에서. _p.11

Q1 만약 내가 타임 슬립 한다면 어떤 시대로 가고 싶나요?

Q2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상상의 날개를 찾아라

싸한 느낌에 주위를 둘러봤다. 어떻게 된 건지 경성역 앞을 오가는 사람들도 온통 낯설었다. 복고풍 양장으로 한껏 멋을 내고 구식 가방을 든 사람, 옛날 교복 차림의 학생들, 양복 윗도리에 증절 모자를 쓰고 한복 바지 아래 고무신을 신은 아저씨, 일본 옷 기모노에 계다를 신고 양산을 쓴 채 팔각팔각 걷는 여자, 젓먹이를 업고 보따리를 인 아주머니,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짐지게를 진 남자, 노랑머리에 얼굴이 하얀 서양 사람까지……. 누런 군복에 누런 군모를 쓰고 옆구리에 총칼을 찬 채 발맞춰 착착 이동하는 일본군 무리도 보였다. 어, 여기가 어디지? _p.8

뭔가에 홀린 듯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주변 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고, 배경이 느리게 움직였다. 내 심장 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인력거 한 대가 지나가다 붓짐 하나를 떨어트렸다. 인력거꾼이 황급히 내려 붓짐을 주웠다. 이번엔 다른 의미로 가슴이 뛰었다. 당황스러운 동시에 묘하게 설레었다. _p.11

Q1

로라는 일제 강점기 시대로 타임 슬립 했어요. 내가 로라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하며 적어 보세요. 그런 다음 실제 이야기와 비교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7. 경성챗봇 알림

경성챗봇 알림톡 도착

- 고객명: 오로라
- 내용: 그대는 모형 전차에서 스스로 일제 강점기 학생이 되고자 해야 뜻대로 되었키니와, 타이무 슬리쑈 한 사실을 깃부게 바다들임이 맞당함. 또한 미쑈 완수 전에는 대한민국으로 도라갈 수 업슴을 엄중히 고향.
- postscript
You have to figure out the mission yourself.
미쑈 찾기를 비롯하여 여기서 버러지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함._p.26

Q1 내가 로라라면 경성챗봇한테 무엇을 묻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

Q2 경성챗봇에서 나오는 옛말체를 지금의 우리말로 바꿔 써 봅시다.

타이무 슬리쑈 →

삿쑈리 →

미쑈 →

8. 정말 잉글리시클럽이?

오, 그럼 그룹 과외라고 하지 말고 구락부라고 할까? 어차피 무료 과외니까 영어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잉글리시구락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았다. 나도 지원을 가르치면서 얻는 게 많은데 일제 강점기 또래 친구들과 영어 공부를 하면 재미도 있고 역사 인식도 높일 수 있을 테니.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 ‘구락부’가 일본식 음역어라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일본식 영어를 고치려고 만드는 모임이니까.

“그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모임이라는 뜻에서 ‘경성잉글리시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구락부’는 일본식 음역어니까.”

지완이 반색하며 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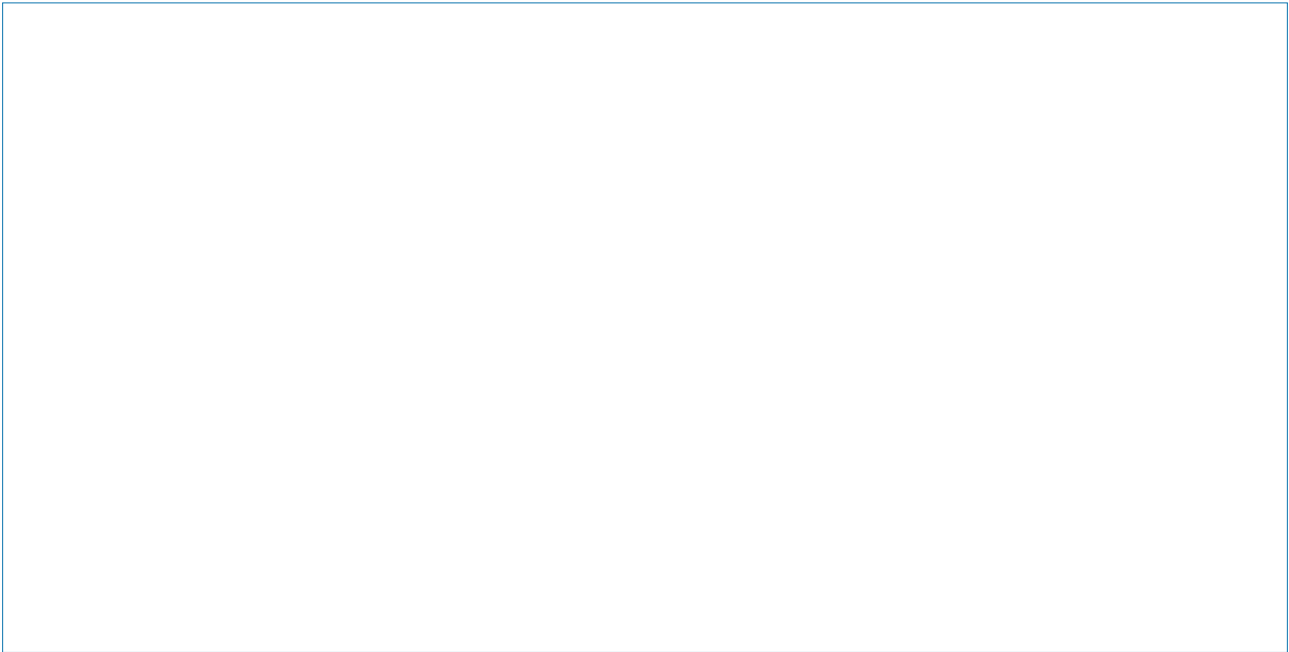
“오, 좋은데? 구락부보다 클럽이 좋다. 잉글리시클럽에 나도 끼워 주는 거지?” _p.95

Q1 다음 영상을 보고 조선 시대 영어에 대해 알아보시다. 그리고 자신의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aCnG937hOs&t=117s>

Q2 로라는 친구들과 경성잉글리시클럽을 만들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모임을 만든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까요.

9. 내가 그린 경복궁



헉! 일본 앞잡이 놈이 쓸데없이 예리한 눈을 가졌네? 그랬다.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 어반 드로잉을 하러 갔다가 그린 그림에는 광화문이 경복궁의 앞쪽 정문에 위치해 있고 총독부 건물은 아예 없다. 내 얕은 지식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민족정기를 없애려고 경복궁 앞뜰에 조선총독부를 세우고 광화문도 원래 자리가 아닌 동쪽으로 옮겼다고 알고 있다. 그러다 광복 후 광화문을 원래 자리로 옮겼고, 치욕스러운 역사의 상징인 총독부 건물은 1990년대에 철거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복원된 광화문을 그리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걸 김순사가 알아본 것이었다. 타케루가 광화문 그림을 손으로 짚으며 으박질렀다.

“야, 이 그림 뭐야! 경복궁 앞에 왜 총독부 건물이 없고 광화문이 있어? 희망 사항을 그린 건가? 총독부가 없어지고 광화문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서? 조선 독립을 바라서?” _p.147

Q1 소설 속 일제 강점기 시대 경복궁과 현재 경복궁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Q2 위의 빈 공간에 오늘날의 경복궁을 그려 볼까요.

10. 묻고 답해요

Q1 지문을 읽고 ○ / ✕ 중 맞는 답을 골라 주세요.

오로라가 맡은 번역은 『피터 앤 웬디』이다. (○ / ✕)

잉글리시클럽 회장은 현지완이다! (○ / ✕)

오로라는 21세기 대한민국으로 못 돌아갔다? (○ / ✕)

오로라는 타입슬립한 일제 강점기에서 영어를 잘했다. (○ / ✕)

경성챗봇은 채팅이 가능했다. (○ / ✕)

Q2 지문을 읽고 답을 맞히세요. (단답형)

오로라와 현지완이 만든 클럽 이름은 무엇인가요?

로라네 집에서 미츠시코에서 ‘숍 걸’로 일하다 잘린 사람의 이름은?

로라가 잡혀간 곳은 ○○서 이다.

로라는 과외비로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 줬나요?

수지가 좋아하는 남학생 이름은?

11. 소설 속 역사 파헤치기

Q1 소설 속 배경인 1932년에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적어 봅시다.

Q2 아래의 빈칸에 일제강점기와 21세기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해시태그를 달아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일제 강점기

21세기 대한민국

#

#

12. 나도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당부대로 일본이 조선을 불법으로 지배하게 된 것, 그리고는 가증스럽게도 내선일체를 외치며 조선인을 핍박하고 있는 현실을 본 대로 느낀 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하룻밤 유치장에 갇혔다 나왔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몸소 체험했기에…….

정신이 몽롱하고 몸도 피곤했지만, 나는 공책을 꺼내 일제 강점기 조선의 현실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단 우리말로 쓴 다음 영작을 할 작정이었다. 너무 길게 쓸 수는 없으니까 짧으면서도 강렬하게, 그리고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써 보기로 했다. 국어 과목은 최상위권이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글짓기 대회에서 장려상이나 입선은 여러 번 받아 온 실력이라 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선 제목부터 생각해 보았다. ‘어느 조선 여학생의 절규’ ‘어느 조선 여학생의 호소’ 등 여러 가지를 썼다가 ‘조선 독립을 염원하는 조선 여학생의 호소’로 정했다. 그런 다음 본문을 쓰고 영어로 작문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도움은 최소화하고 나 스스로 영작하려 애썼다. 그래야지만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조선 총독부’나 ‘독립운동가’ ‘대한독립만세’ 같은 어려운 단어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어 사전을 찾았고, 영작 문장도 자신이 없는 것은 번역 앱을 활용했다. _p.171

Q1

로라는 ‘조선이 잔악한 왜놈들에게 짓밟혀 고통받는 상황을 영어 문서로 만드는 일’을 맡아 당시 독립운동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지키려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적어 보세요.

13. 반짝이는 지원에게

나의 어엿은 로라에게

로라, 작별 인사도 산뜻히 못 하고 이리케 보내 미안해.
경성역 라운지에서 돈가스도 가치 못 머졌네.
로라와 함께하며 나는 조선에서 살아갈 힘과 꿈을 어딴서.
또한 나는 로라 덕분에 깊이 알게 되었지.
반짝이는 건 멀리 있지 안코 우리 가슴에 있다는 거슬.
나, 로라가 썬나간 다음에도 치열하게 살 거야.
나에게, 로라에게, 조선에 붓그렵지 안케,
내 가슴속 반짝이는 걸 더 반짝이게 하기 위해.
로라와 이리케 작별하는 건 슬흐지만,
이런 결말도 나쁘진 안타고 생각해.
우리가 헤어진대서 사랑하지 안흔 건 아니니까.
헤어진다고 사랑을 일혀버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각자의 시대, 각자의 자리에서 열씨미 살자.
그리하야 우리 가슴속의 반짝이는 것을 더 반짝이게 하자!

Sending love to Laura across the ages,

Always your friend, 현지원_p.188

Q1

만일 지원에게 답장을 보낼 수 있다면 뭐라고 보낼지 상상하며 편지를 적어 봅시다.

미래인 청소년 결작선

- 82 조선 판타스틱 잉글리시 신현수 지음
- 81 힌트, 하늘을 나는 교실 나토리 사와코 지음 | 이미향 옮김
- 80 끝나나 농장의 휴식 선자은 지음
- 79 유령 아이 손서는 지음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도서](#)
- 78 덕물풍 이승민 지음 [독서평설 프리미엄 회원 필독서](#)
- 77 안전가옥 코드 코먼 지음 | 이철민 옮김
- 76 인플루엔자 D와 빅 블랙 큐브 제이크 버트 지음 | 채효정 옮김
- 75 초크체리 중학교의 위험한 낙서 고든 코먼 지음 | 김영란 옮김
- 74 어둠의 속도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3 열네 살 CEO 앤드루 노리스 지음 | 함현주 옮김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72 미녀와 쓰레기통 조앤 오킨벨 지음 | 최지수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1 지니어스 게임 3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70 핸드폰 없는 2주일 플로리안 부셴도르프 지음 | 박성원 옮김
[북토큰 선정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9 지니어스 게임 2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68 구름사냥꾼의 노래 2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 67 속제 파업 그렉 핀커스 지음 | 채효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6 프렌드북 유출사건 토마스 파이벨 지음 | 최지수 옮김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5 구름사냥꾼의 노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4 지니어스 게임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3 어쩌다 대통령 사라 카노 지음 | 나운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2 불량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최제니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1 빅스비 선생님의 마지막 날 존 D. 앤더슨 지음 | 윤여림 옮김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0 아이를 빌려드립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해선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58 나쁜 학생은 없다 고든 코먼 지음 | 성세희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7 로봇 하트 파드레이그 케니 지음 | 서애경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6 달기지어 안녕 스텐워드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5 스페이스 보이 닉 레이크 지음 | 이재경 옮김
- 54 니나 대장 실종사건 스텐워드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 53 마틸다 효과 엘리 어빙 지음 | 김현정 옮김
- 52 브이로그 조작사건 팀 콜린스 지음 | 김영아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1 2041 달기지어 살인사건 스텐워드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50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 톰 앵글버거, 폴 벨러저 지음 | 김영란 옮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49 누구나 떨어진다 제임스 프렐러 지음 | 서애경 옮김
- 48 바다에서 보낸 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 47 트루와 넬 G.네리 지음 | 차승은 옮김
- 45 유령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43 친구한테 차이기 전 33분 토드 하삭 로위 지음 | 김영아 옮김
- 42 나를 돌려줘 A.S. 킹 지음 | 박찬석 옮김
- 41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 지음 | 이재경 옮김
- 39 형제는 용감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 38 인터넷 나라의 앨리스 안토에 스틸라트 지음 | 이덕임 옮김
- 35 쓰레기왕 엘리자베스 레어드 지음 | 김민영 옮김
- 34 푸른 하늘 저편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33 로봇 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정현정 옮김
- 30 그래도 학교 고든 코먼 지음 | 안지은 옮김
[영 리더스 초이스 상 수상작](#)
- 29 컨닝 X파일 크리스틴 부처 지음 | 김영아 옮김
- 28 피그보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 22 두근두근 체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KBS 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알라딘 추천 우리시대 청소년 도서](#)
- 21 17세 이근미 지음 [책따세 추천도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 20 두근두근 백화점 알렉스 쉬어러 지음 | 김호정 옮김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 19 방관자 제임스 프렐러 지음 | 김상우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추천도서](#)
- 18 불량엄마 굴욕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 16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14 쌍꺼풀 안나 지음 | 김선희 옮김
- 12 초콜릿 레볼루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주혜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09 불량엄마 납치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캐나다 자작나무상 수상작](#)
- 08 흠으로 슬라이딩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김선희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0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이도영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독서세물결모임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